

## 「정연중의 문학 FeedBack」

(오답률 16위 이하 문항과 '선택 비율 10% 이하 선택지'는 배제했습니다)

[18~21] 「속영남자전」 21번 FeedBack (오답률 56.9%)

문학이 쉽게 출제되던 때는 '실전적 효율성'이 중요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문학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문학을 읽고 푸는 태도에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태도 변화 : 아래의 3단계를 통해 작품을 이해할 것.

- ▶ 1단계 : <보기> 정독 + 예측
- ▶ 2단계 : <보기>의 도움을 받아 작품 읽기
- ▶ 3단계 : <보기>와 「작품」을 대응 + 문제 풀이

★ 정연중T : ▶ 1단계 : 작품을 읽기 전에는 <보기>를 읽더라도 <보기>의 내용이 이해가 잘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최대한 <보기>를 읽으면서 작품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해 봅시다.

▶ 2단계 : <보기>를 정독했다면, 이제 「속영남자전」 독해로 들어갑니다. <보기>를 미리 읽었던 경험이 「속영남자전」 독해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일단은 「속영남자전」에 집중합시다. (어차피 인간은 멀티태스킹이 안 됩니다.)

▶ 3단계 : 「속영남자전」을 모두 읽었다면 <보기>를 다시 읽으면서 「속영남자전」과 '대응'시켜 봅시다. 본인이 잘 대응시켰는지는 <보기>를 「속영남자전」의 내용으로 치환할 수 있는지의 여부로 알 수 있습니다.

<예상 질답>

학생 A : “선생님 말씀대로 읽으면 정확히는 읽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요...”

정연중T : “정확히 읽으면 자연스럽게 빨라질 거야.”

정연중T : “그리고,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는데도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 1단계 : <보기> 정독 + 예측

—<보 기>—

「숙영낭자전」에서 승천은 인간 세상의 명분에 구속받지 않는 가족 사랑을 모색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작품에서는 상공의 잘못이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가문이라는 명분을 중시하는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라고 보았다. 그래서 숙영 부부는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천상으로 보내고, 상공 부부는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여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한 방식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숙영 부부를 천상에만 두어도 부모를 잘 섬기려는 모습으로 그려 낸 것은, 가족 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 정연중T : 21번 <보기>의 경우, 서술된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작품을 읽지 않아도 충분히 <보기>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보기>를 읽으면 <보기>가 잘 읽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잘 읽히든 그렇지 않든, <보기>를 읽으며 ‘핵심 어구’를 추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핵심 어구 ① ‘가족 사랑’

핵심 어구 ② ‘가문이라는 명분을 중시하는 인간 세상’

핵심 어구 ③ ‘숙영 부부 & 상공 부부’

핵심 어구 ④ ‘인간 세상 & 천상’

★ 정연중T : ‘가문’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 세상’의 이야기와 ‘숙영 부부’가 이러한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천상’으로 가는 내용이 나올 거라고 예측했나요?

▶ 2단계 : 작품 읽기

선군이 한림원에 다녀온 후 편지 먼저 하는지라. 노복이 주야로 내려와 상공께 편지를 드리니, 한 장은 부모님께, 한 장은 낭자에게 부친 편지거늘, 부모님께 올린 편지를 상공이 열어 보니,

[A] “문안드립니다. 그사이 부모님께서는 평안하셨나이까? 저는 부모님 덕분에 무탈하옵니다. 또한 친은을 입어 금번에 장원 급제하여 한림학사로 입조하여 도문\*하니, 일자는 금월 망일이오니 잔치는 알아서 준비해 주옵소서.”

하였더라.

낭자에게 온 편지를 부인 정 씨 **춘양**에게 주며,  
 “①이 편지는 네 어미에게 부친 편지라. 네가 잘 간수하라.”  
 하고 부인 통곡하니 춘양이 그 편지를 받고 울며 동춘을 안고 방에 들어가 어미 시신 흔들고 울며, 편지 열어 낮에 대고 통곡 왈,  
 “어머님 일어나소. 아버님 편지가 왔나이다. 일어나소. 아버님 장원 급제하여 내려오시나이다.”

- ★ 정연중T : [ 선군 → 노복(편지 배달) → 상공 ] ‘선군’과 ‘상공’이 멀리 떨어져 있음을 생각했나요?
- ★ 정연중T : 선군의 편지가 ‘한 장은 부모님께, 한 장은 낭자에게 부친 편지’라는 것을 통해 편지를 열어 보는 ‘상공’이 ‘선군’의 아버지임을 알았나요?
- ★ 정연중T : ‘부인 정씨’가 ‘춘양’에게 편지를 주며 ‘이 편지는 네 어미에게 부친 편지라. 잘 간수하라.’고 말한 것을 통해 ‘춘양’이 선군의 편지를 받아야 할 ‘낭자’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았나요?
- ★ 정연중T : ‘춘양’이 ‘어미의 시신을 흔들고 운다’는 것에서, 1) ‘어미’가 낭자라는 것. 2) ‘낭자’가 죽었다는 것. 3) 선군은 낭자가 죽었는지도 모른 채 편지를 보냈다는 것. 3가지를 생각했나요?

(본 분석서의 목적이 흐려지는 것을 우려하여, '작품 읽기'에서 이러한 생각을 해야 하는 이유와 당위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

하며 편지로 낫을 덮으며,

“동춘은 연일 젓 먹자고 읍니다. 어머님 평시 글을 좋아하시더니 아버님 편지 왔사온데 어찌 반기지 아니하시나이까? 춘양은 글을 몰라 어머님 영전에 읽어 드리지 못하나니 답답 하나이다.”

하고 할머니께 빌며,

“할머니께서 어머님 영전에 가 편지를 읽으시면 어머님 영혼이 감동할 듯하나이다.”

하니 정 씨 마지못해 방에 들어가 울면서 편지를 읽는지라.

- ★ 정연중T : ‘춘양’이 ‘동춘은 연일 젓 먹자고 읍니다’고 말하는 것에서, ‘동춘’이 ‘남자’의 자식이라고 생각했나요?
- ★ 정연중T : ‘춘양’이 ‘할머니’께 편지를 읽어 달라는 것에서, ‘할머니’이 상공의 부인인 ‘정 씨’라고 생각했나요? 혹은 ‘정 씨 마지못해 방에 들어가 울면서 편지를 읽’는 대목에서 ‘할머니’가 상공의 부인인 ‘정 씨’라고 생각했나요?

하니 정 씨 마지못해 방에 들어가 울면서 편지를 읽는지라.

[B] “남자에게 문안 전하니, 애정 담은 편지 한 장 올리나이다. 우리의 태산 같은 정이 천리에 가림에, 남자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고, 남자를 생각하지 않아도 절로 생각이 납니다. 요사이 그대의 그림이 전과 빛이 달라 날로 변하나이다. 무슨 병이 들었는지 몰라 객창 등불 아래에서 수심으로 잠들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남자의 지극한 정성으로 장원 급제하여 이 몸이 영화롭게 내려가니, 어찌 남자의 뜻을 맞추지 아니하였으리오? 날짜는 금월 모일이니 바라건대 남자는 천금 같은 옥체를 보존하소서. 내려가 반갑게 만나 사이이다.”

정 씨 보기를 다함에 더욱 슬픈 마음을 진정치 못하여 통곡하며,

“㉞ 슬프다, 춘양아! 가련타, 동춘아! 너희 어미 잃고 어찌 살라 하는가?”

- ★ 정연중T : 선군의 편지에서, ‘선군’은 남자의 ‘그림’이 전과 빛이 달라 걱정하고 있고, ‘내려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때, ‘선군’은 ‘남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나요? 그리고, 앞에서 읽었던 내용들만 서술되어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읽혔나요?

⋮

[중략 줄거리] 선군은 숙영이 시아버지로부터 가문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오해를 받고 자결한 것을 알게 된다. 숙영은 장례 중 부활해 선군과 집에 돌아온다.

★ 정연중T : ‘숙영’이 자결한 이유가 강하게 읽혔나요?(=가문의 명예를 실추)  
 <보기>에서 읽었던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와 연결되던가요?

★ 정연중T : 자결했던 ‘숙영’이 부활해서 선군과 집에 돌아왔다고 하는 것에서, 부활한 이후 굳이 ‘집’으로 향한 이유가 궁금했나요?

상공과 정씨 부인 내달아 낭자를 붙들고 통곡하며,  
 “낭자는 어디를 갔다 왔느냐?”

하며 참혹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더라. 낭자 상공과 정씨 부인  
 앞에 가 절하고 사죄되,

“㉠ 첩은 천상의 죄 있으니 천명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너무  
 한탄치 마옵소서.”

하며,

“㉡ 옥황상제님이 우리를 올라오라 하시니 천명을 거스르지  
 못하여 올라가옵나이다.”

하니, 상공 부부 더욱 처량한 심사를 측량치 못할러라. 낭자 백  
 학선과 약주 한 병을 드리며,

“㉢ 이 백학선은 몸이 추우면 더운 바람이 나오니 천하 유명한  
 보배이웁고, 약주는 기운 불편하시거든 드십시오. 백학선과  
 약주를 몸에 지니시오면 백세 무양하오리다.”

하고,

★ 정연중T : 옥황상제의 천명(승천)을 따르기 전에 부모님께 선물(백학선, 약주)을 드리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위해 ‘집’에 온 것임을 깨달았나요? [중략 부분 줄거리]에서 품었던 궁금증이 해소되었나요?

★ 정연중T : 옥황상제의 명으로 올라가는 것이 <보기>의 ‘승천’임을 인지했나요?

(지금 타이밍에 <보기>와 연결되면 좋지만 이후 <보기>를 다시 읽으면서 ‘대응(3단계)’시킬 때 연결되어도 괜찮습니다. 긴장하고 떨리면 <보기>의 내용이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

“부모님 돌아가실 때 연화궁의 세계로 모셔 가오이다. 천상 선관이 연화궁에 자주 다니오니 극락 연화궁으로 오시면 반기이 만나 뵈오리다.”

하고 선군더러,

“우리 올라갈 때가 급하였으니, 하직하고 올라가사이다.”

하니 선군이 부모지정을 잊지 못하여 새로이 슬퍼하니, 선군과 낭자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엎드려 고왈,

“소자 등은 세상 연분이 다하였삽기로 오늘 하직하옵나이다.”

하고 인하여 하직하며,

“부모님 내내 평안하옵소서.”

하고 청사자 한 쌍을 몰아 한림은 동춘을 낭자는 춘양을 안고, 구름에 싸여 올라가는지라.

상공 부부 낭자와 선군이 천궁에 올라간 후로 망연해하며 세간을 다 나누어 주고, 백세를 살다가 한날한시에 별세하더라.

- 작자 미상, 「숙영낭자전」 -

\*도문: 과거 급제하고 집에 오던 일.

- ★ 정연중T : 나중에 부모님 돌아가실 때 부모님을 연화궁으로 모시겠다고 말하는 대목과 부모님께 엎드려 하직하며 위로하는 대목은 ‘빠르게’ 읽혔나요? (부모님께 백학선과 약주를 드리는 대목이 갖는 의미와 크게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 ★ 정연중T : ‘숙영 부부’만 천상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춘양’과 ‘동춘’(자식들)도 데리고 간 것을 읽었나요?
- ★ 정연중T : 상공 부부가 ‘세간을 다 나누어 주는 것’이 <보기>와 연결하여,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달은 상공 부부의 태도로 읽히던가요?  
‘숙영 부부와 그 자식들이 천궁에 가버려서 세간\*을 나눠 줬구나.’ 정도만 생각해둬도 괜찮습니다. 이후 <보기>를 다시 읽으면서 ‘대응(3단계)’시킬 때 연결하면 되니까요.

\*세간 : 집안 살림에 쓰는 온갖 물건.

▶ 3단계 : <보기>와 「숙영낭자전」을 ‘대응’시킨 후 바로 ‘문제 풀이’

2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숙영낭자전」에서 승천은 인간 세상의 명분에 구속받지 않는 가족 사랑을 모색한다는 의의를 갖는다./작품에서는 상공의 잘못이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가문이라는 명분을 중시하는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라고 보았다./그래서 숙영 부부는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천상으로 보내고, 상공 부부는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여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한 방식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숙영 부부를 천상에 간 뒤에도 부모를 잘 섬기려는 모습으로 그려 낸 것은, 가족 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 ★ 정연중T : 대응(1) 승천 → 옥황상제의 명으로 숙영 부부와 자식들이 천궁으로 가는 것  
대응(2) 인간 세상의 명분(가문) → 숙영이 자결한 이유  
대응(3) 상공 부부의 깨달음 → 세간을 모두 나누어 주는 행동  
대응(4) 천상에 간 뒤에도 부모를 잘 섬기려는 모습 → 백학선, 약주, 연화궁과 관련됨

- ★ 정연중T : <보기>의 첫 문장을 읽자마자 무슨 의미인지 아셨나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심정으로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보기>를 보면 마지막 문장에 ‘하지만’이 있습니다. 그 ‘하지만’을 기준으로 ‘앞 문장’과 ‘뒷 문장’이 <보기>의 ‘첫 문장’을 설명하고 있음을 읽어냈나요? 답답했던 것이 해소되었나요?



〈보기〉

『숙영낭자전』에서 승천은 인간 세상의 명분에 구속받지 않는 가족 사랑을 모색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작품에서는 상공의 잘못이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가문이라는 명분을 중시하는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라고 보았다. 그래서 숙영 부부는 가문이라는 명분이 작동하지 않는 천상으로 보내고, 상공 부부는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여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한 방식을 보여 주었다. 하지만 숙영 부부를 천상에만 두어도 부모를 잘 섬기려는 모습으로 그려 낸 것은, 가족 사랑의 보편적 가치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③ 숙영 부부가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엮드려 고’하는 데에서, 승천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 주어 숙영 부부를 부모를 잘 섬기는 인물로 그려 낸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정연중T : (43.1%가 선택) ‘선군이 부모지정을 잊지 못하여 새로이 슬퍼하니’만을 참고하여 선지를 판단하면, 숙영 부부가 승천을 망설인다고 혼동할 수 있습니다.

‘구절 해석’은 (주제를 바탕으로) ‘앞뒤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해당 구절의 앞 내용 : 숙영 부부는 ‘천명을 거스르지 못하여’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천명을 거스르지 못해 올라가야 하지만 부모님을 인간 세상에 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부모를 위로하여 나아가 엮드려 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2) 해당 구절의 뒷 내용 : 숙영 부부는 ‘세상 연분이 다하여’ 하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1)과 동일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③번을 적절한 선지라고 판단한 56.9%의 학생은 ‘앞뒤 맥락’ 속에서 구절을 해석하지 않고, 한 문장만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숙영 부부가 부모에게 ‘하직’ 인사를 하는 데에서, 숙영 부부로 하여금 부모를 떠나게 하여 인간 세상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양상을 보여 준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정연중T : (30.6%가 선택) ④번 선지를 판단하려면 우선 ‘구조적 문제에 대응’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조적 문제에 대응의 ‘정의’를 <보기>에서 파악한 후, 선지를 판단했나요?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보면,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한 방식’은 숙영 부부를 천상으로 보내고, 상공 부부에게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합니다.

⑤ ‘상공 부부가 ‘세간을 다 나누어 주’는 데에서, 가족을 잃어 허망해하는 상공 부부의 모습을 보여 주어 가문의 무의미함을 깨닫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군.

★ 정연중T : (14.8%가 선택) <보기>와 「작품」을 대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 8p ‘대응(3)’ 참고

(다)

㉠ 신위가 자기 집 이름을 ‘문의당’이라 하고 ㉡ 나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내 천성이 물을 좋아하는데, 도성 안이라 볼만한 샘이나 못이 없어 비록 물을 보는 법을 알고 있어도 써 볼 데가 없는 것이 늘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우친 점이 있었습니다.

넘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로 아홉 개 대륙, 일만 개 나라가 퍼져 있는데 큰 나라는 범선이 늘어선 듯하고, 작은 나라는 갈매기와 해오라기가 출몰하는 듯했습니다. 천하만국에 두루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이 제 집의 이름을 ‘문의(文瀾)’라고 한 까닭입니다. 그대는 저를 위해 이 집의 기문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 ★ 정연중T : 신위가 자기 집을 문의당이라 한 ‘이유’를 [경험 → 깨달음]의 구조로 정리하며 읽었나요?  
‘천하의 지도’를 봄(경험) → 집이 ‘도성 안’에 위치해 있어서 물이 보이지 않지만, 지도로 보면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깨달음(깨달음) → ‘문의’로 이름을 지음(깨달음 이후의 변화)
- ★ 정연중T : 위 부분이 ‘신위(㉠)’가 ‘나(㉡)’에게 보낸 편지 내용임을 인지하고 있나요?
- ★ 정연중T : ‘신위(㉠)’가 ‘나(㉡)’에게 이 집의 ‘기문’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기문’이 무엇인지 궁금했나요?  
(‘기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후술되지 않아, 이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해당 문장이 거슬리는 학생들을 위해 굳이 부연 설명을 하자면, ‘기문’은 기묘한 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상에는 본래 ~ 매한가지라 할 것이오.’의 내용이 모두 ‘기문’에 해당합니다.)

⋮

나는 편지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는 본래 그 실물은 없으면서도 이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금 그대가 집에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그 실물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소. 비록 그러하나 그대도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을 것이오. 지금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물에 산다고** 하지 **산에 산다고** 하지 않겠지요. 섬사람 중에는 담장을 두르고, 집을 짓고, 문을 닫고 **들어앉아 사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니, 그가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접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겠지요. 이와 같은 이치를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어찌 유독 그대의 말에만 의심을 품겠소?

대지는 하나의 섬이고, 세상 사람들은 섬사람이오. 비록 **배를 집으로 삼아** 물 위를 떠다니면서 날마다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형편상 눈을 한곳에 두고 꼼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 잠시 **눈길을 돌려서** 잠깐 동안이나마 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오. 이때에는 겨우 반걸음을 움직인 것이나 천 리를 간 것이나 매한가지라 할 것이오.”

- 서영보, 「문의당기」 -

\* 문의: 물결무늬.

- ★ 정연중T : ‘나’가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 ‘섬사람 중에는 담장을 두르고, 집을 짓고, 문을 닫고 들어앉아 사는 사람’의 예를 들어 ‘신위’의 말에 동조하고 있음을 인지했나요?
- ★ 정연중T : ‘대지’를 ‘섬’으로 인식하여 세상 사람들을 모두 ‘섬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 또한 ‘신위’의 말에 동조하고 있군요. 앞 단락을 읽을 때보다 더 빠르게 읽혔나요?
- ★ 정연중T :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 또한 ‘신위’의 말에 동조하고 있군요. 앞 문장을 읽을 때보다 더더더 빠르게 읽혔나요?
- ★ 정연중T : 마지막 문장도 그 앞 문장과 비슷한 맥락으로 읽어내면 됩니다.

26.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자기 집'을 '문의'라고 한 것에 ㉡가 동의한 이유는 ㉠의 상황이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의 상황보다 집에 '들어 앉아 사는 사람'의 상황에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 정연중T : (48.5%가 선택)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과 '들어 앉아 사는 사람' 모두 '세상 사람들은 물에 사는 섬사람'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말입니다. 따라서 부적절한 선지.

㉡가 적절한 선지라고 판단한 51.5%의 학생들은 애초에 '신위(㉠)'와 '나(㉡)'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 했을 수도 있습니다. (국어 과목은 항상 여러분 스스로 어느 지점의 사고(思考)가 부족한지 성찰해야 합니다.)

㉢ ㉡는 '바다의 섬'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의 삶에 주목하여,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섬에 살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 정연중T : (13.6%가 선택) '물을 가까이 접하지 않는다고 하여,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겠지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가 ㉠의 발상이 타당하다고 하는 이유는, '바다의 섬 가운데' 살더라도 그것을 가리켜 '물에 산다고' 보는 것이 ㉡의 생각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과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 정연중T : (15.4%가 선택) '이와 같은 이치를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고 인정'한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는 '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눈길을 돌'리는 순간이 있는 것과 ㉠가 '물을 보는 법'을 '씨 볼 데가 없'다 하는 것은 물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 정연중T : (18.4%가 선택) '이때에는 겨우 반걸음을 움직인 것이나 천 리를 간 것이 매한가지라 할 것이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7. <보기>를 바탕으로 (가),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문학 작품 속의 소재들은 연관성 속에서 서로 유사 혹은 대립의 관계를 이룸으로써 의미를 생성하거나 그 특징을 부각하는 효과를 드러낸다.

③ (다)의 ‘아홉 개 대륙’과 ‘일만 개 나라’는 바다 안의 육지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 정연중T : (35.2%가 선택) ‘신위’는 ‘천하의 지도’를 통해 ‘일만 개의 나라’가 ‘범선, 갈매기, 해오라기(물 가운데 있는 존재)’로 보이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천하의 지도’를 통해 ‘사람들 모두가 물에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지를 판단해볼까요?

↓ 선지 판단 ↓

새로운 의미가 생성된 것(객체)이 ‘천하의 지도’인가요...???  
오히려 반대로, ‘천하의 지도’가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도록 도운 것(주체) 아닌가요?

④ (다)의 ‘파도’와 ‘깊은 물’은 바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이라는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 정연중T : (34.8%가 선택) 혹시... ‘문을 닫고 들어앉아 사는 사람’ 혹은 ‘물을 가까이 접하지 않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④번 선택지의 ‘살면서 만나게 되는’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나요?

‘살면서 만나게 되는’은 항상 물을 만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모든 사람은 물에 살고 있기 때문(깨달음)’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필은 [경험 + 깨달음]이 구조가 중요합니다. 특히, ‘깨달음’이 주제가 되기에 더욱 중요합니다. 선지를 판단할 때 [경험 + 깨달음]을 상기하며 판단해보세요.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가)

청강 녹초변에 소 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에 흥이 겨워 피리를 빗기 부니  
 물 아래 잠긴 용이 잠 깨어 일어날 듯  
 내 기운에 나온 학이 제 깃을 던져 두고 반공에 솟아 뜰 듯  
 소선(蘇仙)\* 적벽은 추칠월이 좋다 하되  
 팔월 십오야를 모두 어찌 칭찬하는가  
 구름이 걷히고 물결이 다 잔 적에  
 하늘에 돋은 달이 술 위에 걸렸거든  
 잠다가 빠진 줄이 적선(謫仙)\*이 현사할사  
 공산에 쌓인 잎을 삭풍이 거둬 불어  
 떼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몰아오니  
 천공이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어  
 만수천림을 꾸며곰 낼세이고  
 앞 여울 가리 얼어 독목교(獨木橋) 비졌는데  
 막대 멘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간단 말고  
 산옹의 이 부귀를 남더러 자랑 마오  
 경요굴(瓊瑤窟)\* 숨은 세계 찾을 이 있을세라  
 산중에 벗이 없어 서책을 쌓아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여하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하도 할사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한 시운(時運)이 흥망이 있었는고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의 늙은 고블\* 귀는 어찌 씻었던고  
 박 소리 핑계하고 지조가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같아야 볼수록 새롭거늘  
 세사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엇그제 빛은 술이 얼마나 익었느냐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조금은 풀리나다

[A]

- 정철, 「성산별곡」 -

- \* 소선: 소동파를 신선에 빗댄 말.
- \* 적선: 이태백을 신선에 빗댄 말.
- \* 경요굴: 눈 내린 성산의 모습을 빗댄 말.
- \* 고블: 기산에 은거한 인물인 허유.



(나)

생매 잡아 길 잘 들여 먼 산 두메로 펄 사냥 보내고 흰 말  
구불구중\* 갈기 솔질 활활 살살 하여 임의 집 송정 뒤 잔디 잔디  
금잔디 밭에 말 말뚝 팡팡쌩쌩 박아 송마 바 고삐 길게 늘려  
매고

앞내 여울 고기 뒷내 여울 고기 오르는 고기 내리는 고기 지나  
끓으나 끓으나 지나 주섬주섬 낚아 내여 시내 동으로 뺀은 움버들  
가지 와지끈 딱딱 꺾어 거꾸로 잡고 잎사귀 셋만 남기고 주루룩  
훑어 아가미 너슬너슬 꺾어 시내 잔잔 흐르는 물에 납작 실죽 청  
바둑돌로 입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살짝 자기자 장단  
맞춰 지근지지 늘려 놓고 동자야 이 뒤에 학 타신 선관이 날  
찾거든 그물 낚싯대 종이 종다래끼\* 파리 밥풀통 고추장 술병  
까지 가지고 뒷내 여울로 오라고 일러만 주소

아마도 산중호걸이 나뿐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구불구중: 말 모는 하인.

\* 종다래끼: 작은 바구니.

33.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 ‘앞 여울’을 건너가는 노승을 발견하고 ‘경요굴’이 들키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는, 빼어난 경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가, 숨어 있는 세계가 알려질 것에 대한 염려를 통해 드러난다.

★ 정연중T : (13.7%가 선택) ‘경요굴’은 눈 내린 성산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성산의 아름다운 경치가 사람들에게 알려질 것을 염려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화자가 성산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어 풀이가 어려워서 틀렸다면, 유명한 가사 3개 정도 골라서 꼼꼼하게 외워버리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3개의 작품으로 300개의 작품을 읽을 수 있게 될 겁니다.)

③ 만족스러운 외적 풍경에서 눈을 돌려 벗이 없는 ‘산중’에서 ‘만고 인물’을 생각하는 것에는, 정신적 세계에 주목하는 태도가, 적절한 상황에 놓인 인물의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

★ 정연중T : (21.6%가 선택) ‘산중에 벗이 없어 서책을 쌓아두고 /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여하니’의 구절을 통해 선택지의 주어부(외적 풍경에서 눈을 돌려 벗이 없는 산중에서 만고 인물을 생각하는 것)를 판단할 수 있고.

‘어찌된 시운이 흥망이 있었는고 / 모를 일도 하거니와 애달품도 그지없다’의 구절에서 선택지의 서술부(정신적 세계에 주목하는 태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재진술하여 만든 선택지를 다시 본문의 말로 재진술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④ 하늘의 이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했음을 ‘시운’의 ‘흥망’에서 발견하고도 모를 일이 많다고 한 것에는, 인물의 담담한 태도가,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수용하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

★ 정연중T : (48.7%가 선택) ‘애달품도 그지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담담한 태도’라고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상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죠.



3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고전 시가에서 자연은 작품에 따라 다양하게 그려진다. (가)의 자연은 속세와 구별되는 청정한 이상 세계로 그려지며,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탈속적이고 고고한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다. (나)의 자연은 풍요롭게 그려지는 현실적 풍류의 장으로, 활달하고 흥겹게 놀이를 펼치는 곳이며, 신선의 이미지를 통해 멋이 고조된다.

- ① (가)의 ‘용’은 피리 소리로 조성된 탈속적 분위기를 환상적으로 표현하는 소재이고, (나)의 ‘생매’는 고고한 취향을 사실적으로 보여 주는 소재이군.

★ 정연중T : (39.4%가 선택) ‘고고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세상일에 초연하여 홀로 고상하다’입니다.

①번 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고하다’의 사전적 의미를 모르더라도, 현실적 풍류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 정도의 어감은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생매’가 고고한 취향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매를 잡아서, 길들이고, 꿩 사냥을 보내는 것이 어떻게 ‘고고한’ 취향입니까?



<보기>를 ‘배제’하고, 우리가 가진 ‘배경지식’에 따라 판단해볼까요?

(나)의 자연이 ‘2023년’을 배경으로 한다면 ‘생매’가 ‘고고한 취향’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보기>에서 (나)의 자연은 ‘현실적 풍류의 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제자가 시키는 대로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합니다.)

- ③ (가)의 ‘소선’, ‘적선’은 청정한 강호의 세계에서 떠올린 인물의 이미지이고, (나)의 ‘선관’은 ‘나’가 현재의 행위를 함께 하고 싶은 인물을 멋스럽게 표현한 이미지이군.

★ 정연중T : (22.8%가 선택) 아마 구체적으로 명시된 ‘행위’가 없어서 ③번을 골랐겠죠?

화자는 ‘선관’이 날 찾거든 ‘낙시대’랑 ‘술병’을 갖고 ‘뒷내 여울’로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자’가 ‘선관’에게 같이 낚시하고 술 마시자는 의미가 담긴 표현입니다.

